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10월 사역 소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초기 3단계 수준의 통제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무렵 경제적 고통으로 불만이 커지면서 1단계 수준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집회와 일상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하루 확진자가 천명 이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치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한인 사역자들도 30여 가정 이 고통받게 되었으며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길에 환송의 모임도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공항까지 폐쇄되는 상황에서 전세기를 통해 상당 수의 사역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역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인사역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나가 있거나,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신 분들도 이곳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서로 모금에 동참하여 치료와 돌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치료와 회복에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사역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한국행을 선택할 수 없어 현지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꺼이 결정했음에도 막상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니 수년 전 심한 독감으로 호흡곤란을 경험했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의료상황을 아는 만큼 더 두려움이 생겼고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과 비교도 안되는 암흑의 땅 조선에 발을 딛고 사역을 감당했던 초기 선배님들을 떠올리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비대면의 환경속에서 사역자 협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팬데믹 시대의 현지사역 포럼등을 통해 달라진 사회, 의료, 사역 상황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위로부터의 은혜로 변화된 시대에 이곳 중앙아시아의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과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정리하는 이시간 한인 사역자 부부가 양성판정을 받고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은 구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총선이 있었고 지난 주 부정 선거에 대한 시위가 거세지면서 정치적 혼란 상태까지 왔습니다. 선거 유세와 시위등으로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도는 비상경계령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정치적 불안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아뢰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학교는 예정대로 개학을 했지만, 1학년만 등교하고 그 외 모든 학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라는 교육부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는 실시간 수업이 아닌 sns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인터넷, 기기가 준비되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저하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실정에 따라 기초반 학생들은 2주간 대면 수업으로 자.모임 익힘과 관계 형성 이후 중.고급반 학생들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중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초급반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염려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6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원한 학생들이라 학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온라인 수업에도 어려움이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한국어 배움의 동기와 목적은 항상 대부분 코리안 드림이었는데 이번에는 100퍼센트 한국에 가려는 목표인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통제와 비대면 수업 등 답답함이 극에 달했고 탈출구를 찾는 양상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슈인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저희에게 부여되는 도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교사들과 팀웍을 이뤄 자신들의 꿈을 위해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인격적인 대우와 올바른 가치관을 보여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어 수업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 각 학생들의 성장기록을 통해 장, 단기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반 학생들과의 2주간 대면수업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시는 한국 사역자분들 네 가정과 현지인 교사 두 분이 계신데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통한 동역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0년 드림아카데미의 한국어 사역을 통해 동역자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신나고 의미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석탄 지원 사역

장인어른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원주에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복지재단을 통해 키르기즈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석탄을 지원해왔습니다. 펜데믹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중에도 이 사역이 계속 이어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 키르기즈 사회노동부를 통해 선정된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50개 마을중 10개 마을에 한 가정 1톤씩 500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북쪽 지역인 탈라스 주



5개 마을과 동쪽지역 이스쿨 주의 5개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석탄을 가져가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노새 수레를 끌고 나온 주민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활상이 어떠할지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석탄 분배 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정된 지역 외에 소망의 집과 토크목 노숙자 센터, 고려인, 알라토 보육원, 연합신학교 등에도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후원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돕기위해 애쓰시는 밥상공동체가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세워져 큰 역할을 했던 단체인만큼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번역 & 출판 사역

호주로 떠난 로빈 교수님은 건강이 좋아지셔서 이곳 현지 번역자와 온라인을 통한 감수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약주석 번역팀은 호주 로빈 교수와 미국인 편집 디자이너 일레인, 그리고 저와 함께 3명인데 일레인은 현재 미국에서 편집디자이너로 동역하고 있고, 저만 이곳 현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이렇게 호주, 미국, 중앙아시아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현실에 서글프면서도 동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론 이곳 현지에는 감수작업에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 한 분과 현지 번역자들 3~4명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신약주석 13권의 시리즈 가운데 8권이 출간되었고,

제9권(옥중서신)이 드디어 인쇄소에 들어가 인쇄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책이 준비가 거의 끝났음에도 인쇄가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늦어도 10월 중에는 책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4. 소망의 집 사역

3년 전 구청 소속의 공터에 있는 창고 건물을 기본적인 수리만 하여 침대를 들여놓고 시작된 노숙인 센터가 이제 3칸으로 늘어나 기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마당 가운데에는 별도의 화장실, 그리고 지붕이 있는 식당 공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숙인 센터인

‘소망의 집’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드르 목사 가족 모두가 여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지만 잘 회복되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노숙인들 사이에는 집단 감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목사의 딸은 그동안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졸업 후에는 이곳 현지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사역자의 도움으로 내년 3월 한국 대학 입학에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실한 알렉산드르 목사의 사역과 가정, 입시준비중인 딸에게 위로부터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역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어려움 중 서민들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곳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확진자 천여명이 넘어가던 시기에 전면적인 통제가 있었고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미미하나마 저희도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확진자가 많던 시기에는 몇 분의 후원으로 산소호흡기와 방역용품도 지원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았습니다. 교회내의 아이들 일부와 서점을 방문하여 관심 분야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서점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명절같은 날이었고 좋은 선물이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탈라스 시골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이자 영어교사인 아이누라 자매를 통해 주변의 아이들을 모아 영어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저희는 필요한 물품과 문구류 등을 지원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매의 헌신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관심을 보일 때, 길에서 노는 소리를 들을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온지 7년이 되어가는 5월경 안식일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역은 진행중이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활동이 많지 않아 저희에게는 쉽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방문하여 만나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클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만나는 일이 쉬운 상황이 아닌지라 이 또한 위로가 됩니다.

지은이는 한국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고, 지아는 지난 겨울방학에 왔다가 공항폐쇄로 나가지 못하

여 이곳에 남기로 결정하고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하면서 저희의 사역에도 기쁨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이곳 현지에서 20년을 지내며, 저희들의 사역에도 함께하는 것을 보면 큰 감사와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저희와 사역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하신 섬김이 저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